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0호 【루계 제2285호】

주체103(2014). 7 26 토요일 음력 6. 30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사설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로 빛내여나가자

주체조선, 영웅적인민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친 승리의 7. 27이 다가오고있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공화국의 승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유독립과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였으며 인류전쟁사상 그 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엄혹하고 가렬한 전쟁이였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은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할 야망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저들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끌어들였으며 원자탄공갈을 비롯한 가장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3년간의 가렬처절한 전쟁에서 승리한것은 동방에 새로 일떠선 인민공화국이였고 수치스러운 패배의 구렁텅이에 처박힌것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였다. 전쟁기간 공화국은 미제침략군 40만 5 498명을 포함한 156만 7 128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1만 2 224대의 비행기와 564척의 각종 함선, 3 255대의 땅크 및 장갑차, 1만 3 350여대의 자동차, 7 695문의 각종 포를 비롯한 막대한 량의 전투기술기재들과 군수물자들을 로획파괴하였다. 이를 두고 미국의 사가들도 《기절할 정도로 값비싼것》이였다고 저들의 참담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청소한 공화국이 미국을 멸망의 내리막길에 처박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은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 계시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북침전쟁의 불구름이 타래쳐오른 그날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시던 수령님의 호탕하신 웃음, 전쟁의 포연탄우속에서도 화선의 용사들을 대학으로 부르시고 폐허우에서 복구건설의 휘황한 래일을 설계하도록 하신 수령님의 그 태연자약하고 자신만만한 승리의 신심과 배짱은 전쟁전기간 싸우는 군대와 인민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최고사령부작전대우에서 승리의 화살표를 련속 그어주시였으며 적들의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대전에서 창조된 현대포위전의 모범, 적들의 파도식공격을 물거품으로 만든 갱도전법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활동, 습격조활동, 독립중기조활동, 적후파괴조활동, 습격조활동, 이동포병중대활동, 기동고사포병중대활동, 직사포조활동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군사전법들은 아메리카제국을 패전의 함정에 몰아넣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날을 앞당겨오게 하였다.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불비쏟아지는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여 몸소 작전적명안들을 밝혀주시고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승리의 신심과 무적의 용맹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친어버이사랑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세계적인 군사적기적을 낳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굳게 단결하여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침략자들을 타승한 정신력의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해방된 나라에서 땅과 공장의 주인이 되여 꿈같은 행복을 누려온 공화국의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어버이수령님이시였으며 수령님께서 계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은 전화의 불길속에서 군대와 인민이 높이 발휘한 정신력의 근본핵이였다.

영용한 인민군전사들은 1211고지, 351고지, 락동강과 월미도를 비롯한 격전장마다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어뢰가 되여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으며 후방인민들도 준엄한 전화의 나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전시생산과 전선원호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게 결속하고 전승의 축포를 긍지높이 쏘아올렸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한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온 세상에 자랑떨치게 되였다.

건국이래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던 미국이 령토와 인구,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대비조차 되지 않는 청소한 공화국에 패함으로 하여 세계의 면전에서 당한 수치는 인류전쟁사상 가장 비참한것으로 되였으며 미국의 운명을 뒤흔든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미국이 수백수천억US$를 퍼부으며 가장 야만적인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얻은것은 시체와 죽음이였고 《강대성》의 신화가 깨여져나가고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비참한 운명뿐이였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지난 60여년간은 미국의 변함없는 침략과 적대시압살책동으로부터 공화국을 지키고 강성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해온 치렬한 반미대결전의 력사였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선군령도로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찬란히 빛내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드놀지 않는 자주적신념,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화로 극도에 달하였던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은 말그대로 총포성없는 전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고 조미핵대결과 조국수호전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국제정치질서에 파렬구를 내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반제반미투쟁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영광스러운 **김정일**시대에 공화국은 인민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솟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탄생 100돐을 경축하여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은 군사기술적우세가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로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보여준 승리자의 대축전이였다.

오늘 우리 민족의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린 총대를 틀어쥐고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을 영원히 끝장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의 무적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군민대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험천만한 최대열점지역들에까지 서슴없이 나가시여 작전전술적명안들을 밝혀주시고 군인들에게 일당백의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시며 적들의 침략기도를 련속 제압분쇄하심으로써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고계신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공격기질과 뛰여난 령군술, 강철의 담력과 드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영원히 백전백승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멸적의 투지와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들을 높이 모시여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하여왔으며 앞으로도 승리는 영원하다는것이 승리의 7. 27에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새겨보는 진리이다.

승리자의 긍지가 넘쳐나는 뜻깊은 7. 27을 맞으며 온 겨레는 반제반미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선군승리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전승의 전통을 이어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것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숭고한 의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실 때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진리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불세출의 위인들을 모신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가장 걸출한 령장이시고 희세의 정치가이시다. 온 겨레는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적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맞받아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정의와 애국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나가야 한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지난 조선전쟁에 대비할수 없는 엄청난 핵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 보검인 공화국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며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공화국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하여 그리고 최근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변함없는 립장을 천명하고 그에 남조선당국이 적극 호응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이 가는 통일의 앞길에 의연 험난한 장애들이 가로놓여있지만 천출위인이 계시고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있으며 자주통일의 힘있는 력량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승리의 7. 27은 민족자주위업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검열경기에는 국가종합팀과 제비팀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두 팀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경기에서는 지난 시기 국제국내경기들을 통해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우수한 선수들과 전도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망라된 국가종합팀이 제비팀을 12: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겼다.

관람자들은 우리 식의 경기전법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보여준 두 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이 높은 축구기술과 정신력,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과시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위해 그동안 훈련을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고 하시면서 체육인들이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숭고한 체육정신과 민족의 기개,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겨레의 화해와 단합,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신성한 체육이 불순세력들의 정치적롱락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우리 체육인들이 훈련에 더 큰 박차를 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전망대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뿌리 아득한 고산과수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얼마나 보기 좋소, 철령아래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펴나고있소,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 서면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하시며 끝간데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농장에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무릉도원으로 꾸리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으로써 농장력사의 갈피갈피를 세세년년 빛나게 기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쇠그물울타리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신장, 쇠그물장, 제관용접장, 형강생산장, 수지도포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618건설돌격대가 당의 의도에 맞게 쇠그물울타리공장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내외부는 물론 모든 요소요소를 멋있게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과나무들의 생육상태를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과일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도 가르쳐주시였으며 농장에 필요한 륜전기재와 설비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제대군인부부인 김주성, 김금희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집들이한 제대군인부부인 리정수, 손인옥과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2,000여세대의 문화주택들에 입사한 농장의 근로자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이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한다고,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서 돌격대가 발휘하고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해주시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건설자들, 고산과수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수농장으로 전변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를 몸소 지도해주신 소식은 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천만국사로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밤늦도록 우리 축구선수단의 검열경기를 장시간 지도하시며 무한한 영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선수들의 사기를 한껏 북돋아주신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과 전체 체육인들은 격정과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체육인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 겨레의 화해와 단합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신 뜻깊은 말씀에서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확고한 통일의지와 숭고한 민족애를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결정에는 비록 정세가 긴장하고 대결이 첨예하지만 동족이 치르는 잔치분위기를 돋구어주고 이번 대회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우리가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정세속에서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공식 통보한데 이어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내보내기로 하고 실무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번 경기대회참가를 북남관계개선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려는 애국애족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는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로 더 흥성이게 되고 더우기 격페된 북남관계를 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올림픽정신과 민족의 화합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이번 실무회담에서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와 래왕경로 및 운수수단, 숙소리용과 응원문제를 비롯한 실무적문제들과 관련하여 국제관례에 기준하면서도 북남사이의 현정세를 충분히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체류비용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남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배를 가지고 나가 인천항에 정박시켜놓고 숙식하는것까지 예견하였다.

이러한 선의와 노력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도 없이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문제에 시비를 걸고 말씨름이나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것은 내외의 비난과 망신만을 자초하는 수치스러운 처사로밖에 되지 않는다.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는 속에서 별치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내기를 한다면 북과 남사이에 복잡하게 얽히고 맺힌 그 많은 매듭들을 언제 가도 한치도 풀어나갈수 없을것이다.

한지맥으로 잇닿아있고 군사분계선에서 지척인 인천에서 진행되는 국제경기에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사태가 빚어진다면 온 겨레와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씻을수 없는 오욕을 남기게 될것이다.

그 누구도 순수한 체육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지금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체육열풍과 함께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진정어린 경기대회참가의사에 대해 의심을 앞세우지 말고 적대관념으로 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을 내보내는 문제를 겨레의 화해와 단합,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견지에서 인내성있게 대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7월 23일
평 양

겨레의 화해와 단합에 적극 이바지해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이 참가하게 된다.

이 소식은 지금 내외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공화국의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돌이켜보면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남조선에서 열리는 국제체육경기대회마당에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나가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열기를 크게 고조시켰다.

대표적으로 2002년 남조선의 부산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아리랑곡조가 울리는 속에 통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홰불로 타오를 때 온 겨레는 통일의 환희로 들끓었다.

공화국의 선수들과 응원단이 가는 곳마다에서 통일의 파도가 세차게 굽이쳤다. 경기장들에서 울려퍼진 《우리는 하나!》,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의 거세찬 함성이 민족은 하나, 피줄도 하나임을 확인시키며 겨레를 감동시키였다. 북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서면 남의 관중들이 응원하고 남의 선수들이 출전하면 북의 응원단이 열띤 응원을 펼치는 등 겨레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여갔다. 《우리는 하나다!》의 구호로 시작된 파도타기응원이 즉시에 호응을 불러일으켜 관중석을 돌고돌며 하나된 모습으로 끓어번지고 다시 그 파도와 함성이 경기장을 타고넘어 온 남녘땅을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구었다. 마치도 국제체육경기가 아니라 남과 북이 모여 우리 민족끼리를 과시하는 통일행사의 마당과도 같았다.

그때의 광경들은 피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인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의 념원과 요구는 오직 하나 조국통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그 나날 온 겨레의 가슴속에 고동친것은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존엄있고 륭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이였고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세기적숙망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이였다.

그런데 지금의 북남관계는 꽉 막혀있다.

최근에 공화국이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현시기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성의에는 성의로 대하고 진정에는 진정으로 대답하는것이 도리이다.

남조선당국이 미항공모함을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벌리고 8월중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는 크고 관심은 높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다시한번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대구대학생체육경기대회의 그 열기를 창조하자》,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은 살아숨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게 될것이며 대립과 갈등을 봄눈 녹이듯 할것이다.》라며 통일사절들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신성한 체육이 불순세력들의 정치적롱락물로 되여서는 안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을 적대시하고 시비하는 비렬하고 도발적인 행위를 일삼을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대범하고 성의있는 제안들에 적극 호응하는 길로 나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세기를 이어 빛나는 승리의 7.27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로 설레이고있다.

승리, 이 두 글자에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부풀게 하는 민족의 환희가 어려있는것인가.

승리는 사람들의 운명을 가른다. 특히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민족사적의미가 헤아릴수 없이 크다.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혹은 패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솟구치기도 하고 반대로 천길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청소한 공화국과 조선민족의 운명을 건 력사상 가장 처절한 싸움이였다.

이 전쟁에서 세계의 예상을 깨고 청소한 인민공화국이 미국을 타승하였다. 그것은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일대 기적이고 새로운 전승신화였다.

60여년전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짓부셔버린 7.27전승은 정의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 현명한 지략과 령군술의 승리이다.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산악같은 배짱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 천출명장의 령도를 받는 공화국인민의 정의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 조국결사수호정신이 창조한 력사적기적이고 승리였다.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였다.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면서 침략자 미국은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만큼 조선전쟁은 적아가 군사기술적, 력량상에서 차이가 너무도 엄청난 대결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어리석었고 오산하였다. 하루면 일거에 북조선을 함락한다고 장담한 미국은 3년간이나 추풍락엽의 신세가 되여 호된 징벌을 면치 못하였고 끝끝내 조선인민앞에 흰기를 들었다.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승리에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의 나날 무려 5만 2 000여리의 화선강행군을 이어가시며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전법으로 미군의 작전계획들과 기도를 여지없이 격파분쇄하시였다. 주동적인 반공격전략제시, 현대포위전의 모범창조, 강력한 제2전선형성,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전술구사, 전시생산과 원호조직과 같은 탁월하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세련된 령군술로 미국침략세력을 타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으로 되였고 불의를 타승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총포탄이 작렬하는 격전장들과 전시생산으로 날과 날이 밝는 공장과 농촌을 비롯한 후방에서 군대와 인민이 소리높이 부른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봄노래》와 같은 전시가요의 메아리는 멸적의 총포성과 함께 그대로 승전포성과도 같았다.

당시 조선에 주재하고있던 이전 쏘련의 《쁘라우다》특파원으로서 7.27전승의 력사적장면인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고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촬영하였고 후날 또다시 미국이 도발한 《푸에블로》호사건을 목격한 울라지미르 똘스찌꼬브는 **김일성**동지는 전생애에 걸쳐 모든 대결에서 승리한 력사에 유일한 승리자이시고 영원불멸할 정의의 화신이시라고 격찬하였다.

7.27전승의 사변과 기적은 련전련승의 력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추억은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럽다.

침략의 6.25뒤에는 패배만이 차례진다는 쓰디쓴 교훈을 잊고 정전은 휴식이다, 싸움은 이제부터다며 침략의 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은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의하여 정전후에도 이 땅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1960년대의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을 둘러싼 조미대결전, 1990년대초의 제1차 조미핵대결전, 그후 제2차 조미핵대결전 등은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준엄하고 첨예한 조미대결이였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며 승리는 우리 인민의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수호의지와 애국헌신의 선군장정에 의하여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걸음마다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없었더라면 이 땅에서는 열백번도 전쟁이 터졌을것이며 우리 겨레는 두번다시 전쟁의 참화와 재난을 당하였을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에 대하여 인디아의 사회계인사인 비슈와나스는 **김정일**령도자는 조선을 무한대의 군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시여 제3차 세계대전이나 세계열핵전쟁을 막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시였다고 하였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말로써가 아니라 총대에 의해 지켜진다는것이 7.27전승과 조미대결전에서의 련전련승의 력사가 가르치는 진리이다.

침략세력의 도전과 위협책동에는 초강경대응으로 대답하는것이 공화국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배짱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힘이 강할 때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침략세력의 도발을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제압하고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하려는것이 그이의 확고부동한 자주적대와 조국수호의지이고 결심이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자위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외세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는 무진막강한 군력을 가진 조선의 현실과 위력에 대하여 인디아신문 《피플즈 데모크라씨》는 미국은 1953년 조선전쟁에서 패하였으며 지금도 이길수 없다, 그들이 조선을 침공한다면 또다시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전하였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제 미국의 심장부에 수천수만의 목숨을 묻어버릴 유일한 적수가 있다면 북조선일것이라고 하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는 자기만이 강자라고 하는 과신때문에 미국이 어느때인가는 50년대초 조선전쟁때와는 비교할수도 없는 파국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고 평하였다.

세계의 옳은 평가이고 공감이다.

침략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때에는 정전협정이란 있을수 없으며 침략자들은 쓰디쓴 자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핵억제력을 비롯한 강력한 군력이 있으며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힘이 있어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는 머지않아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지혜산에서 드리신 경의

강원도 매봉산줄기의 지맥에 놓여있으면서 해발높이가 1 192m인 지혜산에서는 1211고지가 한눈에 보인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인 1951년 9월 어느날 지혜산에 오르시여 전승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1951년 여름 《하기공세》에서 대참패를 당한 미국은 수많은 병력을 들이밀어 새로운 《추기공세》를 기도하고있었다.

미군은 《추기공세》를 준비하면서 전선서부에 적지 않은 병력을 들이밀고 그곳이 마치 주타격방향인듯이 부분적공격을 시작하였고 그럴듯 한 정보까지 흘리였다. 만약 그러한 정세판단에 따라 군사작전을 진행한다면 1211고지를 잃게 되는것은 물론 그뒤에 의거하여 싸울만 한 고지가 없어 원산까지 적에게 내여줄수 있었다. 참으로 전쟁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때 최전선의 고지에 오르시여 적정을 료해하시고 미군의 기도를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럭바위우에 놓은 작전지도우에 적들의 《추기공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승리의 화살표를 그어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뛰여난 지략으로 오랜 침략전쟁과정에 로회하고 음흉한 술책으로 악명을 떨친 미국의 살인장군들이 두뇌를 합쳐 고안해낸 《추기공세》를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시였다. 진정 1211고지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군사전법의 빛나는 승리였다.

그때로부터 이름도 없이 직동령 서쪽산이라고만 부르던 그 산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재적인 지략과 선견지명을 펼치신 곳이라고 하여 지혜산으로, 작전지도를 펼쳐놓았던 너럭바위를 작전바위로 부르고있다.

주체86(1997)년 4월 15일이였다. 그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지혜산을 찾으시였다.

련면히 뻗어간 산발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지혜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라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이어 작전바위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그이께서는 만일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들의 기도를 제때에 간파하시고 1211고지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았더라면 조국의 산 1211고지를 지켜낼수 없었을것이며 전쟁국면도 매우 어렵게 되였을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이런것을 생각할 때마다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선견지명에 머리가 숙어지군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지혜산혁명사적지 현지지도표식비앞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우리는 오늘 4월 15일을 최전연에서 맞다보니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수령님께 경의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혜산에 세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서 수령님께 경의를 드립시다라고 하시며 정중한 자세로 앞에 나서시여 최전연산발이 쩌렁쩌렁 울리게 구령을 치시였다.

《차렷! 경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혜산에서 드리신 경의!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기어이 승리를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심장의 선언이였고 엄숙한 맹세였다. 그날의 맹세를 지켜 그이께서는 초인간적인 정력과 의지로 끊임없는 선군길을 이어가시며 공화국을 세상에 존엄높은 선군의 나라, 불패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선군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빛내여가고계신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최후의 승리, 밝은 미래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

옛 전장에 울린 포성

전선에서 전선으로 끊임없는 시찰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장정에 의하여 7.27전승 신화와 기적은 련전련승의 력사로 길이 빛나고있다.

총포성이 울부짖는 전쟁의 나날 화선강행군을 하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모습그대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준엄한 나날 선군천만리를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기상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남전선의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로부터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최전방초소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종횡무진하시며 어제도 오늘도 조국수호의 전선길을 걷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지난 7월 중순 동부전선을 시찰하시였다. 최전연을 지키는 인민군장병들의 초소들을 돌아보시며 경계근무정형과 적정을 료해하시고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연경계근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데 대하여 지시하신 그이께서는 351고지를 찾으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피어린 격전터인 그 고지에는 전쟁의 제4계단 마지막시기에 서울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351고지는 내여줄수 없다고 버티는 적을 단숨에 제압하고 수십여일간에 걸치는 적의 반공격도 물리치고 고지를 사수한 인민군장병들의 전투위훈이 깃들어있다.

고지의 감시소에 오르시여 동부전선을 지키고있는 포병부대들의 훈련진행계획과 방사포들의 배치상태를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이윽고 포수들이 지적된 화력진지를 차지하도록 하신 다음 화력타격순차와 방법, 목표를 정해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우뢰와 같은 폭음이 최전연산발들을 뒤흔들고 고지는 전장을 방불케 하는 자욱한 포연에 휩싸였다.

해상에 세찬 물기둥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화력타격을 보신 원수님께서는 포병들이 정말 포를 잘 쏜다고 하시며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옛 전장에서 울린 포성은 그대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도전과 침략책동이 그치지 않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감히 적대세력이 끝끝내 조선반도에서 침략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조차 없게 모조리 섬멸해버릴 인민군장병들의 멸적의 의지와 기상을 보여준 승전의 메아리였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적들이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선부대들의 싸움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351고지는 결코 지나간 세월의 옛 전장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 최후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정의의 수호자들이 멸적의 포신을 추켜들고 철옹성같이 지켜서있는 오늘의 전장이다.

조국수호, 민족수호를 위한 반제반미대결의 격전장은 351고지만이 아니다.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우에 놓여있는 장재도와 무도, 화도와 려도, 오성산과 지혜산, 대덕산,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모든 진지와 초소들이 위대한 령장의 전략전술적화살표를 따라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는 불침의 전함, 불퇴의 고지이다.

적아대결이 첨예한 땅에서 최전방을 주름잡으며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 평화를 수호하시는 위대한 명장을 모신것은 민족의 더없는 행운이며 백전백승의 힘의 원천이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강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로 나라의 군력을 비상히 강화하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민족의 존엄과 안녕, 조선반도의 평화가 담보되며 7.27전승은 오늘도 빛나고있는것이다.

김 연 희

비범한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

《총공격》대 총반격

미군이 공화국북반부전 지역을 단숨에 함락하겠다고 호언하며 《크리스마스총공격》을 준비하고있던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군사일군을 만나시고 미군의 《총공격》을 총반격전으로 제압하기 위한 작전안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맞게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작전은 미군이 공격을 시작하는 무렵에 개시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이께서 예견하신대로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미군은 《크리스마스총공격》을 시작하였다.

상대의 기도를 제때에 간파하신 수령님께서는 미군이 《총공격》을 시작한 이튿날 인민군부대들에 총반격전에 진입하도록 명령하시였다. 하여 전선서부의 청천강, 대동강상류 그리고 전선동부의 장진호반과 그에 잇닿아있는 개마고원의 계곡마다에서 인민군대의 총반격전, 대소탕전이 개시되였다. 인민군대의 드센 반격에 의해 미군의 《크리스마스총공격》은 《총퇴각전》으로 역전되여 불과 며칠만에 남쪽으로 패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유럽의 한 기자는 종군기에 이렇게 썼다.

《미군은 이날 총공격을 개시하자마자 다음날로 인민군대의 총반격에 부딪치였다. 미군의 총공격날자를 알아맞힌것도 상상밖의 일이지만 빈틈없이 잘 타산된 반공격시간의 선택도 참으로 놀라운것이다. 그것은 인민군 최고수뇌의 작전능력에 한계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대전포위전

전쟁발발후 얼마 안되여 인민군대는 금강을 단숨에 도하하고 적들이 《제2수도》로 정한 대전으로 물밀듯이 공격하였다. 미제24사를 비롯한 적주력집단을 제압하여 3차작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것이 대전포위작전의 기본목표였다. 그런데 아군의 주타격전선 좌익에서 전진하는 보조타격집단의 공격속도가 지연되면서 포위전에 난관이 조성되게 되였다.

당시 조성된 전선상황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합부대들의 배비변경과 작전임무를 새롭게 정한 전술방안을 제시하시여 대전포위환의 공백을 순식간에 메꾸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7월 20일 7시간동안의 대전포위전은 승리적으로 결속되게 되였다. 미제24사 사단장 띤이 생포되였고 수많은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들이 살상, 포로되거나 파괴, 로획되였다.

대전포위전은 조성된 정황에 따라 림기응변의 지략으로 전투력량의 기동을 령활히 조직하여 물샐틈없는 포위망을 형성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이 낳은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해전사의 보기 드문 기적

인민군대가 서울에 진공한 다음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군사령부의 한 일군을 만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보유하고있는 어뢰정과 비행기가 많지 않은데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적함선집단이 동해상에서 함포사격을 마음대로 하고있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제2어뢰정대로 미해군의 중순양함을 까부실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단 네척의 어뢰정으로 함선집단을 타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력량상대비를 보면 아군은 규모와 무장장비에서 적의 1/440, 인원은 1/10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선 인민군대는 미국의 원자무기도 이길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누구도 중순양함을 건드릴수 없다는 적의 과신을 약점으로 리용한 해상공격작전안을 가르쳐주시였다.

며칠후 어뢰정대해병들은 주문진앞바다에서 해상공격전을 단행하여 1만 7 000t급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1만 4 000t급 경순양함을 격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세계해전사에 전례없는 해전상보로 죽가마끓듯 한 주문진해전에서의 인민군대의 승리는 적함대를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괴멸시키도록 하신 수령님의 령활한 작전과 슬기로운 지략의 승리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전승력사는 영원할것이다

재미교포 차령묵

나는 지난해 7월, 전승 60돐을 맞는 공화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의 진실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고싶었던 나는 서방세계가 《전쟁방화국》으로 선전하고 있는 공화국에서의 전승돐행사에 참가하여 의문의 모든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싶었던것이다.

공화국방문과정에 보고 느낀것 일부는 이미 지난해 인터네트를 통해 발표했다.

다시 돌아온 7월을 맞으며 세기를 이어 진행되는 북미대결전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며 지난해의 취재자료를 다시 정리하여본다.

누가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

지난해 공화국방문시 취재의 첫 주제는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것이였다. 공화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서방의 선전만에 익숙해있던 나의 물음은 처음부터 반격에 부딪쳤다.

만나는 주민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조선전쟁은 미국의 사촉밑에 리승만《정부》가 일으켰다고 울분을 토했다.

공화국에는 그를 립증하는 사진과 력사기록자료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공화국에 와서 지난 50년대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것을 묻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그러던중 해방산호텔에서 만난 40대의 한 남성이 나의 생각에 제동을 걸어왔다.

《선생은 지금 객관적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오래동안 살아온 미국이나 서방의 견해에 치우쳐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왔으면 한번쯤만이라도 우리의 견해에 관심을 가지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야 판단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할수 있을줄로 압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력사자료는 그만두고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전쟁이라는것은 이길수 있다고 생각될 때 먼저 일으키는것이 아닙니까. 핵무기와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예무기들을 다 가지고있던 미국을 상대로 그때 보총과 수류탄같은것밖에 가진것이 없던 갓 창건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먼저 전쟁을 일으킬수 있습니까?》

무력관계에서 너무도 하위에 있는 나라가 숱한 파괴와 죽음을 불러오는 전쟁의 참화를 스스로 자초할수 없음을 그 어떤 력사자료고증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면 알수 있다는 말이였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프로이센장교이자 군사전문가였던 클라우제비츠가 내놓은 《전쟁론》은 현대군사학의 교본이다. 이 책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련속이다.》라는 명제로 유명하다. 20세기 국제관계에서 그의 명제는 종종 전쟁의 합리성을 뜻하는것으로 리해되였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발발, 확대, 종결이 각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된 결정이며 또 그럴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고대전쟁으로부터 현대전쟁에 이르기까지 무력관계가 서로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렬세에 있는 나라나 무장집단이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자기의 정치적리해관계에 따라 먼저 일으켰다는 사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공개적인 방법이든 음밀한 방법이든 력사는 전쟁을 원한쪽에서 언제나 먼저 행동을 개시하였음을 기록하고있다.

그럼 누가 전쟁을 원했고 왜 원했는가.

나는 당시의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조선강점초기 신탁통치과정을 통하여 전조선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체계에 편입시키려 하였으나 그것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우고 그것을 저들의 대조선정책실현의 도구로 써먹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쏘련과 중국, 북조선으로부터의 《공산권확대》에 《방벽》을 쌓기로 작정했다.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획득하며 오만해진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공산세력과의 무력대결의 초점이 될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위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선반도를 반드시 타고앉을 모략을 꾸몄음을 짐작할수 있다.

그 모략이란 리승만《정부》를 앞에 내세워 전쟁을 유발시키게 한 후 《유엔》의 모자를 쓰고 《정정당당하게》 조선전쟁을 수행하여 《합법》적으로 조선반도를 타고앉는것이였다.

결국 오래동안 내가 정설로 여겼던 조선전쟁도발주범에 대한 인식과 《북조선의 침공》이라는 미국과 남조선의 조선전쟁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귀국후 나는 조선전쟁과 관련한 책들과 당시의 신문, 통신자료를 보며 조선전쟁도발의 주범이 누구인지 력사적사실을 통해 다시 확인할수 있었다.

미국의 학자 부르스 커밍스가 쓴 《코레아전쟁의 기원》을 비롯하여 《코레아전쟁의 숨겨진 력사》, 《아메리카현대사》, 《1950년대의 인식》, 《움직이는것은 무엇이든 쏴라》 등에도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력사와 진실은 감추지 못하는 법이다.

조선반도에 분단선이 생기고 오늘까지 하나의 민족이 갈라져 비극을 겪는것도 미국때문이다.

나는 미국에서 근 50년을 살면서 비교적 미국을 잘 리해하고 잘 알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미국사람들이 조선의 분렬과 조선전쟁에 그토록 커다란 영향을 미친 정치적 및 력사적사실들, 왜 공화국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로부터 그토록 지속적으로 비속화되고있는지, 과연 《초대강국》 미국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 잊고살았다는것, 아니 너무나도 모르고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게 되였다.

성격적기질로 보나 력사적과정을 살펴보나 조선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거나 할수 있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으며 또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그 무엇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니고 남의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빼앗아가지고싶어하는 나쁜 버릇을 태생적으로 가지고있다.

미국이 6.25전쟁때 저들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지역의 이름을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 등으로 붙여 나간것을 사람들은 다 모를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조선반도를 미국의 령토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쟁시기 실지 벌어졌던 사실들과 오래전에 미국이 한 행동들이 중동과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반복되고있는 현실은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온 나를 몹시 괴롭게 하였다.

미국이 아니라면 조선은 지금 어떻게 되였을가?

7.27은 어떤 날인가

공화국에서는 정전협정이 조인된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지금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무승부라고 한다. 때문에 미국도 남조선도 이날을 《평화수호》,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의 날로 기념하고있다.

그러면 공화국이 말하는 전승이란 일방적인 자축이란 말인가.

나는 이러한 회의심으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평양의 창전거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의 집을 찾아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새 집에 입사했다는 행복에 넘친 그들부부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인사불성으로 불쑥 전승에 대해 물었고 평양지하철도 개선역에서 아이의 손목을 잡고 지나가는 녀인을 따라가서도 이것을 꼬치꼬치 물었다.

그들은 칠순객의 해외동포를 의아하게 바라보면서도 거침없이 말했다.

그들의 말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왜 전승이 아닙니까. 100여년의 침략력사에서 단 한번도 저본적이 없다는 강대국인 미국이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신생독립국가인 우리에게 먼저 두손을 들고 정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어디에서 먹는다며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꿈에도 질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면 승패가 갈린다고 했던 그 전쟁이 3년간 계속되면서 너무도 비참한 참패를 당하다나니 패전을 영예롭게 감싸기 위해 마침내 정전을 요구한것입니다. 〈유엔〉의 간판밑에 15개의 추종국가군대까지 끌어들인 미국이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은 정전협정조인서는 조선에 바친 명백한 항복서입니다.》

해외동포사업국 안내원이 들려준 이야기도 흥미롭다.

《지금 미국이 조선전쟁을 두고 그 무슨 〈잊혀진 승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패전의 수치감에 속앓이를 할것입니다. 〈잊혀진 승리〉가 아니라 죽어라고 잊고만싶은 패전이기때문입니다.

조선전쟁이 끝난 후 미군은 〈조선전쟁은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안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이였다.〉고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정부〉가 이날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정전협정조인장에 마주앉은것은 우리와 미국입니다. 전쟁은 미국과 우리가 했기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군사주권도 못 가지고 사는 남조선 〈정부〉는 미국의 얼굴만 보며 사는 말그대로 괴뢰일뿐입니다.》

나는 공화국에 대한 리해와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정적판단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중요하며 공화국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는 일이 선차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공화국이 말하는 전승은 얼마든지 납득할수 있다.

수백배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에 있던 《강대국》, 미국의 항복서를 받아낸 공화국의 결정적힘은 정신력이였다.

미국병사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싸웠고 전쟁에서 져도 돌아갈 땅이 있었다. 그러나 공화국민중은 40여년간의 일제식민지생활에서 갓 벗어났고 전쟁에서 지면 다시 그 생활을 강요당해야 하기에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켜야 한다는 필사의 각오와 맹약을 안고 싸웠다.

난생처음 제 이름으로 받은 분여지가 있고 돈 한푼 안 내고 자식들이 공부하던 학교가 있으며 공장의 주인으로 마음껏 일하던 일터가 있었다. 8.15해방으로 얻은 기쁨과 자부가 너무나도 컸다.

원주민을 학살하고 그 무덤우에 나라를 세운 미국병사들에겐 그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있었던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비대해진 미국이 비법적으로 쌓아놓은 엄청난 강재와 화약과 딸라와 인간증오뿐이였고 모든것을 버려도 건져야 하는 제 목숨 하나뿐이였다.

결국 조선전쟁은 략탈과 오만으로 함축된 미국의 물리적힘과 공화국민중의 자기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된 초인간적인 정신력과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었다.

공화국민중의 운명적사고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일성**주석께서 서계셨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항일전쟁에서 민중의 자주적힘을 발견하시였고 그 힘을 묶어세우시여 미국의 대독점군수재벌들이 쏟아내는 철갑병기들을 녹여내시고 전쟁고용병들을 거꾸러뜨리신것이다.

공화국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면 철과 철이 부딪쳐 깨지고 부서지는 폭음소리보다 인민을 품어안으신 **김일성**주석의 그 위대한 심장의 박동소리를 먼저 들을수 있다.

그분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전쟁의 나날에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위한 내각결정을 선포하시고 적후에서 어느 녀인이 잃어버린 3살잡이 아이를 위해 최고사령부작전대에서 직접 구출작전을 조직하여주시였다.

폭격속에서도 안정된 인민들의 전시생활을 위해 산들에 굴을 뚫고 지하시장을 꾸리도록 하여주시고 전쟁이 한창이던 때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벌써 전선의 대학생들을 대학으로 불러주시였다.

이 모든것 하나하나는 인류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력사적사변이 아닐수 없다.

그분에게 있어서 조선전쟁은 더 강한 인민의 삶의 세계를 창조하는 전쟁이였고 이 나라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고 후방에서 보습을 억세게 끄는 녀인들의 바늘쌈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였으며 평화와 도덕과 륜리를 지키고 그것의 승리를 인류에게 확신시키는 전쟁이였다.

빨찌산투쟁을 통하여 세련시킨 특이한 전법들을 구사하시며 군과 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애정으로 현대전쟁의 새로운 힘의 론리를 증명하신 **김일성**주석은 세론이 지적하는것처럼 20세기를 격동시킨 명인, 명장이시였다.

공화국에서의 전승력사는 지난 세기 50년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힘만능》집단이 **김일성**주석의 서거이후 공화국에 가한 특별하게 포악하고 비렬한 정치, 경제, 군사적제재와 포위압살책동은 가장 오랜 시간동안의 가장 야만적인 전쟁행위로 된다.

따라서 공화국은 생사존망이 판결되던 그 치렬한 고난의 행군때를 《제2의 조선전쟁》이라고 부르며 그 싸움에서 공화국을 승리로 이끄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혁명령도시기를 전승력사에 포함시킨다.

가장 가혹한 전쟁과 북《붕괴》를 위해 필요했던 그 모든 특수한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되였던 지난 90년대의 북미대결전은 현시대가 체험한 또 다른 형태의 전쟁행위임을 우리는 부인할수 없다.

그 전쟁을 승리에로 이끈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전승철학은 무엇이였을가.

나는 전승 60돐을 맞이하여 공화국에서 진행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처음 보는 순간 나는 한동안 말을 할수가 없었다. 언어를 잊는 순간이였고 정신이 공백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이였다. 내용은 더 말할것도 없고 그 거대한 공연규모만으로도 나는 이제껏 나름대로 쌓아온 상식과 주견따위를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였다.

인간의 재능과 지혜가 우주에 닿을수는 있어도 땅우에 그처럼 거대한 인간군상을 그처럼 황홀하게 펼칠수 있을가.

아마도 공화국이 말하는 일심단결이란 바로 이것이였구나 하는 생각은 퍽 후에야 들었다.

공화국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뜻, 하나의 모습이라지만 특히 어린 꼬마들까지 노래하고 률동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모습은 아직도 내 리해가 닿지 않는 아득히 먼곳에 놓여있다.

10만명이 거대한 공간에서 하나의 목적과 형상에 복종하며 만들어내는 초대형화폭들은 그저 기적의 조화, 조화의 기적일뿐이였다.

늦은밤 나는 호텔에 돌아와 **김일성**주석께서 지난 조선전쟁시기 적진에 쏟아부었던 불소나기보다 더 위력한 그 불멸할 정신력의 힘이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의하여 그대로 응집발휘되여 《제2의 조선전쟁》에서 또다시 미국을 타승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처럼 재능있고 정의롭고 굳센 사람들이 광활한 미국땅에서도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였을가.

미국은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서 나라를 지키고 가꾸는 북민중앞에 얼굴을 붉힐 때가 되였다.

나는 안내원에게 말했다.

북에는 힘이 있다. 대단한 힘이 있다.

당신들이 긍지높이 칭송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김정일**장군님, **김정은**원수님 그분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도 견딜수 없다고 생각할 때 견디여냈고 현실인데도 현실처럼 믿을수 없는 신비의 화폭을 펼친 기적의 나라를 일쿠어내시고 태평양을 건너온 나에게도 그 비법을 선선히 가르쳐주셨기때문이다.

생각할수록 공화국에 대한 지난 시기의 나의 생각이 너무도 틀려있었음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속담에 우물이 깊어서가 아니라 드레박끈이 짧아서 물을 못 푼다는 말이 있다.

내 생각의 드레박끈이 북이 지닌 정신적깊이에 닿을만큼 길지 못했고 길수도 없었음을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초대석에서 나는 다시한번 자인하게 됐다.

나는 서방탐방인의 눈으로 행사전반을 랭정하게 살피였다. 초대석 맨 하단에 자리잡고있던 내 앞으로 북군민의 행렬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한사람, 한사람을 빼놓지 않고 살폈다. 주석단을 향해 내뿜는 뜨거운 열정과 환호, 넘치는 기쁨과 환희, 그것은 나를 열광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었다. 많은 사람들은 울고있었다.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환호를 하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은 왜 우는가, 왜 그토록 열광인가?

그들의 모습을 열심히 《눈취재》하는 사이에 행사는 벌써 끝났다. 그 벌써가 2시간이였다.

참으로 신기했다. 그들이 나에게서 고온속의 피로감을 모두 가셔주고 잊게 해주었다. Mt급 메아리를 남겨주었다.

공화국주민 누구나 만나면 자기 령도자를 먼저 생각하고 령도자는 또 민중을 먼저 생각하는 어버이와 아들딸의 관계, 자기의 령도자를 만나뵈올 때를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 인생관, 자기들의 삶의 가치를 모욕하고 짓뭉개려 할 때면 목숨을 내대고 지키는 결사항전의 자세, 여기에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는 이루어낸 강력한 군사력이 함께 등장하여 지난해 행사장은 그대로 공화국의 힘의 진렬광장이 된셈이였다.

참으로 세계《초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긴 공화국의 전승절행사는 200여개 나라가 존재하는 지구상에서 미국을 이길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화국만의 힘과 오늘도 계속되는 적대세력들에 대한 저항력의 원천이 무엇이며 조선전쟁을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7.27이 과연 전승인가라는 시대가 인류에게 준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준 21세기 최우수총화작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시묶음

승리에서 최후승리에로!

승리의 기치

김영일

미제를 쳐부신 영용한 사단들
불굴의 용사들을 사열하시는가
여기 전승기념관에 원수복 입으시고
환한 미소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령장의 출중함이
안광에 넘쳐 그윽하시다
멸망의 내리막길 미제에게 선언한
그 탁월함이 추켜드신 손길에 비끼여 있다
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

들려오는듯싶어라
미제가 전쟁의 불을 지른 그 첫날
그날에 벌써 승리를 확신하시며
호탕한 웃음속에 수령님 하시던 말씀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세계는 보았어라
조선사람의 그 본때, 그 기질로
패전을 모른다는 미제의 등뼈를 꺾어 놓은
조선의 신화, 조선의 기적을

아직은 전쟁사의 그 어느 작전도에서도
그어진적 없는 신묘한 붉은 화살표가
수령님의 손길에서 뻗어나갔어라
그 어느 전쟁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전략전술의 그 비범함이
싸우는 고지들에 승리의 기발로 나붓겼어라

오, 침략자들의 숨통을 거머쥐시고
조국해방전쟁 그 3년간을
승리의 세월로 빛내여오신 수령님
그이를 모시여 그이가 계시여
청소한 공화국이 제국주의괴수를
억척같이 눌러딛고 강국으로 솟아올랐거니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락관을 준 년대
승리는 조선의것임을 만방에 떨친 년대
그렇다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조국의 존엄 민족의 운명을 지켜
승리에로 인도하신 위대한 수호자
지나온 승리의 년대가 받들고
맞이할 승리의 래일이 길이 모실 수령님
수령님은 조선의 장군으로 영원히 계시여라

힘에 대한 생각

김태룡

이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았다
전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리라고
허나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승리를
우리 무슨 힘으로 안아왔던가

패전을 모른다는 미국
《강대성》신화를 보란듯이 깨버리고
멸망의 시궁창에 처박은 힘
《승리》상의 저 람홍색기발을
하늘가에 떠받든 그 힘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사랑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결전장
생사를 판가름하는 처절한 싸움터에서
수령님 주신 사랑
그 어떤 불길도 태우지 못한 사랑이였거니

물어보자 세계전쟁사여
피로 적셔진 너의 력사 그 어느 갈피에
총포탄이 아닌 콩을 싣고
전선으로 군용차가 내달린
그런 사랑 새겨본적 있었더냐

말해보라
전선이 지척인 화선휴양소에서
폭음을 짓누르는 떡메소리 울리고
행군하는 애어린 병사의 신들메
최고사령관이 매여준
그런 감동의 화폭 새겨본적 있었더냐

아, 콩나물국을 끓이던 뜨거운 불길이
타래치는 불구름을 밀어낼수 있다는것을
철썩 철썩 산골을 깨치던 그 떡메로
침략자들의 정수리를 쳐갈길수 있다는것을
이름없는 병사가 영웅이 될수 있음을
세계앞에 보여준 조국해방전쟁

그 어떤 총탄도 뚫을수 없고
그 어떤 무기도 굴복시킬수 없는
백두령장이 부어주신 크나큰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했거니

그 어느 강대국에도 없는 힘
그 어느 나라 전승박물관에도 없는 힘
위대한 사랑이 안아온
7.27전승기적
세월은 무궁토록 길이길이 전하리라

렬사들의 기관단총

김윤식

렬사들이 틀어잡은 저 총은
그들의 명줄이였고 목숨이였나니

렬사들이 목숨바쳐 지킨 조국
그 조국이 잊지 못해 품어안은
영생의 이 언덕에서
사랑하는 기관단총을 틀어잡고
오늘도 조국을 지키는
영원한 사수로 사는 전화의 영웅들

억세게 틀어잡으라
전승을 안아온 영웅들의 후손들이여
여기 인민군렬사묘 공화국기발우엔
대를 이어 물려가며 잡고있어야 할
조국수호의 무기가 있다

금시라도 틀어쥐고 방아쇠를 당기면
멸적의 불줄기가 뿜어나올듯싶구나
뜨겁게 달아오른 총구에선
물씬 화약내가 풍겨나오는듯싶구나
오, 인민군렬사묘의 기관단총이여

얼마나 낯익고 숭고한 모습들이
이 총신에 비껴 흐르는것인가
리수복, 강호영, 김룡택…
장렬한 최후의 그 순간에조차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놓지 않은 총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주인의 권리를 주신 어버이수령님
삶의 그 품을 지켜

화선신선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인민군병사들이 적의 포탄깍지로 만들어 리용하던 화선신선로가 전시되여있다—

김영일

어허 오늘은 누굴 상좌에 모실가
특무장아바이 능청스럽게 눈을 찡끗
싱글벙글하는 병사들의 앞에는
포탄깍지로 만든 화선신선로가 부글부글

오늘도 원쑤들의 공격을 몇번이나 물리쳤나
원쑤들의 폭격에 고지는 낮아졌어도
승리의 신심은 하늘에 닿아
미국놈비행기 보총으로 쏘아 떨군
각줄 하나 꼬마병사 상좌에 앉았네

자, 어서들 들게나
먹어야 힘이 부쩍 난다네
특무장아바이 양념처럼 외우는 말
터지는 병사들의 폭소에
갱도기둥의 포탄깍지등불도 춤을 추네

정말 좋구나
후방에서 보내온 어물맛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네
수령님 보내주신 콩으로
맛나게 무쳐낸 콩나물향취에
특무장아바이 말을 하네
자, 승리한 그날
우리 고향 평양에 가서 한턱 내지
평양의 특산물 그득 넣은 화선신선로
아니, 그때에는 평양신선로라 해야겠지
그때에는 누구도 빠져선 안돼
특무장의 명령이야

자 어서들 들라구
많이들 먹구 또 야간습격전에 나가야지
특무장의 말에 어느 한 병사가 《양념》을 치네
먹어야 힘난다네
또다시 터지는 폭소
아 원쑤칠 용기 백배해주던 전선의 랑만이여

불비 쏟아지는 고지에서 끓던 화선신선로
그날의 병사들 여기 없어도
그날의 승리를 말해주며
오늘도 화선신선로는 끓고있어라
승리의 랑만, 승리의 희열로
우리 가슴 후더이 끓여주고있어라

미국에 보내는 경고

김송림

여기 아름다운 보통강반에
유원지, 공원을 꾸려놓고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낸다 한들
가련한 미국의 몰골을 굽어보는것보다
그렇게 마음 후련하고 흐뭇할수 있으랴

남의 땅에 기여들었다가
형체도 없이 부러지고 동강나고 박살난
미국의 숱한 파철더미들
찢겨진 그 잔해들…

볼수록 통쾌하구나
《대아메리카》의 처참한 몰골
두동강난 저 비행기의 잔해는
비행기사냥군조에 혼쭐이 난
하늘의 요새라 뽐내던 《B—29》

무한궤도가 풀어헤쳐진채
꺾어진 포신 땅에 구겨박힌 육중한 저 땅크는
땅크습격조에 걸려들어 박살난 땅크
볼품없이 되여버린 저 잔해들에서
피를 토하며 썩어가는 미국의 주검을 본다

신생독립국가 조선앞에
백여년의 전쟁사에서
승전만을 기록했다는 미국
그 거만한 코대가 여지없이 꺾여
쓰디쓴 참패의 눈물들이킨 미국

1950년대 그 조선전쟁에 바친
패배의 주검, 수치의 제물이 적었던가
《푸에블로》호, 《EC—121》정찰기…
기회를 노려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들었건만
그때마다 영웅조선의 무적의 위용앞에
미국은 무릎꿇고 개코망신만 당했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끝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제
또다시 이 땅에 덤벼든다면
그때엔 아메리카가 통채로
거대한 파철더미, 잔해들로 뒤덮이리라

승리에서 최후승리에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승리상앞에서—

김송림

7월의 눈부신 해살
여기에 실리여 빛을 뿌리는가
바로 여기서 광휘로운 빛발이
전승의 내 나라에 비껴가는가
《승리》상대돌에 빛나는 글발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

우러를수록 숭엄하구나
수령님 이끄신 전승의 세대가
미제를 쳐부시고 항복서를 받아낸
영웅조선의 그 불멸할 1950년대에
우리 원수님 삼가 드리신 경의의 친필

수령님 안아오신 전승
장군님 빛내여오신 선군의 업적
영원한 최후의 승리로 빛내이실 의지
그 의지로 끓어번지는 심장의 더운 피로
《승리》상대돌에 새기여주신
뜻깊은 친필이여

빛나는 저 글발
어이 대돌에만 새기시였으랴
자신의 심중에 억척같이 새기시고
우리 원수님 빛내여가시여라
수령님 찾으셨던 고지와 전호들에
장군님 오르셨던 최전연산발들에
위대한 승리의 년대를
동해의 관문 섬방어대들을 찾으시였을 때

병사들의 명중포화에 적진이 산산조각나고
화염을 뿜으며 대기를 박차는
위력한 전술로케트들의 그 불줄기
하늘땅 바다를 진감하는 장쾌한 그 폭음속에서
우리는 원수님 안아오시는 승리
세월을 넘어 이어지는 7.27을 보았어라

전승의 그날은 멀리 흘렀어도
7.27은 력사의 갈피에만 있지 않아라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조선의 날과 날은 7.27로 흘러흘러라

이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 몰려온다면
전화의 영웅들 그 후손들답게
우리는 싸워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위대한 승리의 년대처럼
우리의 년대를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리라

오,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조선의 7.27은 영원하리라
그이를 높이 받들어
싸우는 조선은 힘차게 나아간다
승리에서 최후승리에로!

달라질수 없는 선택

우리 민족은 력대로 남의 나라에 화살 한촉, 돌멩이 하나 던진적없는 선량한 인민이며 북의 군대는 자기 강토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무장집단이다. 외부세력의 도전과 위협이 증대될수록 북의 군대는 훈련도 강도높게 하고 병기도 월등하게 개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현저히 높이고있다.

최근에만도 인민군대는 전술유도탄발사훈련, 포실탄사격을 비롯한 이여의 훈련을 통해 첨단장비의 성능과 실전능력을 검증과시했다. 그 모든것은 철두철미 조선반도에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온갖 적대행위에 대처한 자위적인 군사행동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북의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 덮어놓고 거들다 못해 유엔안보리까지 사촉하여 북 《도발》, 《위협》문제로 국제화하고있다. 북에 대해 뿌리깊은 체질적거부감과 자기만이 강자인체 하는 독선적인 체병을 가진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불순세력의 오만하고 불손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북에 대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적진전을 보기가 어렵다며 압을 가하고 한편에서는 다른 길을 택하면 잘살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있다. 그러나 한손에는 핵방패를, 다른 손에는 창조의 보검을 쥐고 강성부흥을 하자는것이 북의 야심찬 목표일진대 상대의 당근과 채찍전술에 말려들리 만무한것이다.

북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자체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이다.

세계에 첫 원자탄이 출현한이래 지구촌에서 많은 전쟁들이 유발됐지만 핵을 가진 국가들간에는 단 한번도 싸움이 터진적이 없다는 전례를 봐도 핵 대 핵, 미싸일 대 미싸일을 취하는 북의 단호한 결심과 강경립장은 당연하고 현명한 정의의 선택이다.

북은 이미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고 자기 결심과 립장표명을 했다.

최근에 인민군의 전략군부대가 진행한 전술유도탄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도 김정은령도자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하신것을 보면 자위를 생명으로 여기는 북의 초강경태세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가히 알수 있다고 본다.

북의 립장은 명백하다. 도전세력이 아무리 아부재기를 쳐도 자기의 자위적이고 위력적인 전술유도탄들이 목표를 겨냥해 거침없이 계속 날아오를것이라는것이 반공화국적대세력에게 주는 북의 현실적대답인것이다.

달라져야 할것은 미국의 분별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추종세력의 시대착오적인 편견과 전횡이라고 부언한다.

재중동포 오명근

《미국의 못된 버릇 조선이 고친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실린 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전 한신대학교 교수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미국이 남의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빼앗아가지고 싶어하는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잘못 길들여진 나쁜 버릇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미국이란 나라는 200여년전 나라를 세울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런 나쁜 버릇을 타고 이 지구상에 태여난 나라이다.

미국이 그동안 전쟁을 하여 남의 땅을 빼앗은 회수가 무려 165회이상이라고 한다.

미국이 6.25전쟁때 〈철의 삼각지〉(강원도 평강군과 철원군, 김화군을 련결하는 중부전선의 요충지)에서부터 북진해올라가면서 점령지역의 이름을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으로 붙인것을 아는가. 이것이야말로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를 미국령토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나쁜 버릇의 발로가 아닌가.

〈5027작전계획〉이란 북을 점령한 이후 일본과 북을 서로 나누어가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누가 미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것인가.

미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조선뿐이다. 미국이 온갖 수단으로 압박하고 조여도 그것을 견디여낼수 있는 정신력이 있는 나라는 조선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정신력의 원천은 어디서 온것인가.

그것은 1930년대말 김일성장군과 항일유격대원들이 겪은 고난의 행군에서 온것이다.

그러면 과연 정신력만으로 미국의 저 고질적인 못된 버릇을 고칠수 있는가. 여기에 총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군정치에서 나온 핵무기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선제공격용이 아니다.

총칼이면 못할것이 없다는 미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핵이다. 조선에 핵이 없어보라! 조선반도는 벌써 지도상에서 사라지고말았을것이다.

력사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고난의 행군을 걸어온 조선만을 남겨두고 미제국주의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말것이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북미사이의 전쟁은 력사적인것이며 력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저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는 조선의 편에 서야 한다.

조선이 싸우고있는것은 미국이란 나라자체가 아니고 태생적으로 길들여진 미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나이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버릇없는짓을 하는것을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한다.

력사가 200여년밖에 안되는 미국이 반만년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에 대해 지금 버르장머리없는짓을 하고있다.

반드시 고쳐주어야 한다.》

본사기자

미국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조선전쟁

《6.25전쟁은 더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닌 〈영예로운 전쟁〉이자 〈영광의 승전〉이다.》

최근 미국의 정계와 군부, 언론계에서 나오는 주장의 일부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정전협정체결 60년을 계기로 워싱톤에서 진행된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데서 조선전쟁에서 마치도 저들이 승리한것처럼 기염을 토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는 조선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닌 《잊혀진 승리》이니 뭐니 하는 자화자찬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나오고있다.

미국만이 할수 있는 력사외곡이고 억지주장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 세기 중엽 미국은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야망밑에 남조선군을 사촉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을 질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저들의 위력을 과시하고 손쉽게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의 추종국가 군대들과 남조선군, 지어는 전패국인 일본까지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명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술기재들을 다 동원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에 투하한 군수물자의 수량만 해도 7 300여만t에 달하였다. 당시 미군부세력들은 저들이 72시간만에 《조선전쟁을 결속지을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너무도 몰랐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공화국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수적우세와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도덕적우세와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였다. 미국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발휘된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은 세계인민들을 경탄케 하고 침략세력들에게는 경악을 자아내게 했다.

그것도 그럴것이 국가형성후 약 130년동안에만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110여차의 침략전쟁과 8 900여차의 군사적간섭을 감행하면서 언제한번 패전한적이 없었고 세계대전을 비롯한 모든 전투들에서 《전승》만을 자랑해온 미국이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그림자만 보아도 줄행랑을 놓을것이라고 하던 스미스특공대가 인민군대에 의해 풍지박산이 나고 《상승사단》이라던 미24사단이 대전에 포위된채 운명을 고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미군들이 개죽음을 당하였다. 땅우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 미국의 공중비적들이 영용한 인민군의 포화력과 비행기들에 의해 추풍락엽의 신세가 되였고 바다의 수호자들에 의해 《볼티모》호와 같은 수많은 미국의 함선들이 바다에 처박히고 침략자들은 물고기밥신세가 되였다. 《백전로장》, 《불패장군》으로 미국에서 떠받들리던 맥아더나 릿지웨이, 워커, 클라크, 띤 등 수많은 살인장군들이 《패전장군》으로 치욕을 받고 지옥행을 택하거나 포로병의 처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던지 이에 대해 미국신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조선전쟁에서 《미군의 손실은 미국이 다섯번의 대전쟁 즉 독립전쟁, 1812년의 전쟁, 메히꼬전쟁, 미에(미국—에스빠냐)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얻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이상 더 많다.》라고 썼다.

상승일로를 자랑하던 미국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조선전쟁을 통하여 세계는 미국이 떠들던 《강대국》, 《초대국》의 신화는 한갖 빈말뿐이며 침략의 부정의는 조국수호의 정의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

지금 미국이 저들의 참패가 너무도 수치스러워 《잊혀진 전쟁》, 《악몽의 전쟁》이라고 부르던 조선전쟁을 7.27을 계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잊혀진 승리》로 외곡하며 기념하겠다는것은 그야말로 웃지 못할 희비극이다.

력사는 결코 외곡할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해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미화해보겠다고 극성을 부릴수록 그것은 오히려 자기들의 체면만을 더욱 구겨놓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력사의 교훈을 망각한다면

미국이 그처럼 자랑하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성조기에는 침략과 피로 얼룩진 미국의 범죄력사가 깃들어있다. 살인의 상징이며 피의 제국의 대명사인 성조기를 뻐젓이 휘두르며 오랜 기간의 침략전쟁사를 아로새겨온 미국이 세상에 대고 으시댄것은 크고작은 수많은 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는 양키식자부였다.

《상승일로》의 쾌감에 젖은 미국은 침략의 예봉을 조선반도에도 돌리였으나 여기에서만은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1866년 《셔먼》호의 침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조선침략의 촉수를 뻗쳐왔지만 매번 차례진것은 좌절과 치욕의 쓰디쓴 참패였다.

그중에서도 지난 1950년대의 조선전쟁은 미국의 침략력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되는 대참패였다.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할 흉심밑에 남조선군을 사촉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이전의 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정예사단들과 장성들을 모조리 동원하고 인류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까지 적용하며 공화국인민들을 굴복시키려고 발광하였지만 력사의 기록은 어떠했던가. 《상승사단》의 선견대인 스미스특공대는 오산계선에서 강력한 타격을 받고 순식간에 풍지박산났다. 당시 군사전문가들과 종군기자들이 평하였듯이 《오산의 비극》으로 《미군의 비극적인 패주의 첫막》이 열렸고 그들이 《불퇴의 선》, 《최종방어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금강방어선은 모래성무너지듯 맥없이 돌파당하였다. 미24사단은 대전에서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여 모조리 포위섬멸되고 살구멍을 찾던 사단장 띤은 나어린 조선인민군 군인에게 포로되여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였는가하면 미8군사령관이였던 워커는 인민군 적후부대의 매복에 걸려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그야말로 침략열에 달아오르고 거만해질대로 거만해진 미제의 코대가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에 의해 여지없이 부러지고말았다.

1953년 7월 27일은 미국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를 바친 력사적인 날이다. 이날과 더불어 미국의 이른바 《강대성의 신화》는 깨여지고 내리막길의 시초가 열리였다. 이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미국은 이후에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등 정치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벌리였지만 언제한번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모든 시도는 물거품으로 되여버렸다. 차례진것은 세계면전에서 당한 2중3중의 수치와 패배, 굴욕감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지난 조선전쟁과 정치군사적도발에서 당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력사를 외곡하며 그 무슨 《승리》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면서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을 구실로 새 전쟁도발책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다. 지난해를 《조선전쟁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미국은 국방성청사에 《조선전쟁기념전시관》까지 차려놓고 조선전쟁을 그 무슨 《잊혀진 승리》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며 모략날조선전에 열을 올리여도 그것은 북침전쟁도발자, 수치스러운 패배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벌어지고있는 사실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지난 11일 미국은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타격집단과 이지스구축함 《키드》호편대를 남조선에 투입한데 이어 남조선군부와 함께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해상기동 및 항공기요격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22일부터는 일본 《자위대》해군함선들까지 끌어들여 제주도근해에서 대규모적인 해상합동훈련을 강행하였다.

얼마전 미국이 남조선강점미군에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심요소인 고고도요격미싸일 《THAAD》를 배비하기로 결정한것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위협하면서 핵전쟁발발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력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만일 미국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 땅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수치스러운 패배의 구렁텅이에서 영영 솟구쳐오르지 못할것이다. 미국이 패배를 모르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간지 오래며 앞으로 제2의 조선전쟁이 터진다 해도 승패는 불보듯 뻔하다.

미국은 1950년대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대상과 잘못된 전쟁을 치르었다.》고 비명을 올린 《패전장군》들의 말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는것이 필요하다. 불의가 정의앞에 견딜수 없다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승전일》인가 패전일인가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정전협정조인날인 7.27일을 《승전일》로 《기념》한다고 한다.

하다면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과연 《승리》하였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군 《장군》들의 고백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한테 지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군대에 그렇게 유능한 지휘관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중무기로 무장한지도 몰랐습니다. 인민군대가 이렇게 발전하면 10년만 지나면 세계1등급의 군대가 될것입니다.》(포로된 미24사 사단장 띤의 고백중에서)

《미국이 조선에서 격파되였다는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다. 세계에서 그들(조선인민군)을 격퇴하기에 충분한 부대는 없다.》(전 미군 장성 타프트)

《조선전쟁은 명백하고 의심할바 없는 실패이다. 개국이래 미국의 위신이 전 세계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진적은 없었다.》(전 미국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

《나는 모든것이 실패라는 감을 가지고있다. 나의 선임자들인 맥아더와 릿지웨이장군들도 동감이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정부의 지시를 집행하면서 얻은것이란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문에 수표한 첫 미군사령관이라는 보잘것없는 명성이다.》(전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잘못 고른 시각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을 하였다.》(전 미합동참모본부의장 오마르 브레들리)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였다.》(전 미국무장관 마샬)

조미대결에서 승자는 누구인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으며 얼마전 기자는 공화국을 방문한 재미동포 정기렬선생을 만나 조미대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미대결구도의 근본적변화

기 자: 1953년 7월 27일은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패하고 력사상 처음으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다. 그러나 쓰디쓴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국은 오늘도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에 광분해오고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조미사이의 첨예한 대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기 렬: 세계가 놀라고있다. 조미사이의 대결이 오래동안 지속되고있다는것은 그만큼 힘이 대등한 상대라는것을 말한다.

하지만 조선과 미국은 인구나 령토, 자원과 경제, 군사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비조차 할수 없다. 공화국은 인구가 미국의 13분의 1정도밖에 안되며 령토는 미국의 작은 한개 주정도에 불과하다. 력량상으로 보아도 1:1이 아니라 1:100정도의 대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100이라는 수자에는 미국의 종속국들이 포함되였을것임은 물론이다. 그 100에 유엔안보리사회를 핵심으로 미국지배의 모든 국제조직들,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들 또한 포함되여있음은 불문가지이다. 외견상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극단의 비대칭대결구도인것이다.

이러한 대결구도속에서 공화국은 1990년대 후반기 그토록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이겨내고 미국을 대화자리에 끌어내였다.

《인류사에 전무한 세계<최강>의 제국》을 세운, 하여 스스로를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까지 부른 미국은 지난 60여년간 조선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온 세상이 세계《유일초대국》에 머리숙였던 1990년대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는 고사하고 반대로 《대화, 타협》을 운운하며 시간만 끄는데 전념했다.

리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자신을 《최초의 패전장군》이라 부른 클라크때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조미대결사, 다시말하여 미해군간첩선 《푸에블로》호나포사건(1968년)을 시발로 승무원 31명 전원을 동해에 수장시킨 미공군첩보기 《EC—121》호격추사건(1969년),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1994년), 조미공동성명(2000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2005년), 급기야 2013년 4월 중순 백악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 베이징으로 이어진 오바마, 케리 등의 대화구걸청탁같은것들로 점철된 조미대결사에서 해답을 찾을수 있을것이기때문이다.

문제는 극단의 비대칭대결사의 전기간 수모와 패배를 경험한 당사자가 불가사의하게도 공화국이 아니라 미국이였다는 사실이다. 미국과의 60여년 비대칭대결을 평화적으로 끝내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평화협정체결을 쉼없이 제기하고 요구한 당사자가 바로 공화국이였다.

오늘 지구촌정세는 세상이 머지않아 세기적의의를 갖는 위대한 변화들에 직면하게 될것임을 예고하고있다.

미국의 과거 최고정보책임자와 핵무기관련 최고권위자의 한 사람이 《조미대결구도에 근본적변화가 발생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미본토를 순식간에 70% 초토화할수 있는 핵폭탄을 북이 이미 개발했다.》는 내용이 증언의 핵심이다. 이것은 일종의 패배선언으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2013년 2월말 새 국방장관에 취임한 척 헤이글 또한 상원군사청문회에서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올해 1월 15일 《미본토에 대한 북의 핵공격위협이 최대고민》이라 고백한 미태평양군사령관 쌔뮤얼 라클리어중언 역시 마찬가지다. 현직 미국 최고군사지휘관중 한명도 일종의 패배선언을 한것이다. 2014년 1월의 클레퍼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도 현직의 국가최고정보책임자가 고백한 패배선언외에 다름아니다. 지난 60년 특히 지난 20년의 조미대결사가 그들의 증언이 패배선언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말그대로 조미대결사는 공화국이 선군정치로 세계《유일초대국》을 끝없이 대화자리로 끌어내여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미국을 강제한 력사외에 다름아니다.

2013년 3~4월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최초의 세계핵전쟁직전상황이 이를 증명해주고있다. 공화국이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세력의 끝없는 침략기도를 좌절시키며 우주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서자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미국은 유엔을 내세워 공화국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공화국은 목숨보다 귀중한 자주적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공화국의 《전면전선포》에 그토록 오만하던 미국이 4월 11일 오바마를 시작으로 12일, 13일 서울, 베이징을 쫓아간 케리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대화를 구걸하고 청탁했다. 헤이글, 울시, 프라이, 클레퍼, 라클리어 등이 앞다투어가며 증언한 공화국이 개발했다는 최첨단핵무력이 조미대결구도를 이미 근본에서부터 뒤집어놓았기때문이다. 세상이 아직은 다 모르는 공화국의 최첨단핵무력이 미국이 《대화, 타협》 운운하며 공화국에 일종의 백기를 들게 만든 실제리유와 배경이였다는것이다. 인류사에 전무한 세계《유일초대국》을 일떠세운 미국이 평화를 사랑하고 양보를 즐기며 대화를 선호해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1994년 10월의 제네바기본합의문에서부터 2013년 3월 전면전선포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북에 보인 일련의 반응들을 통하여 미국이 공화국을 속으론 이미 자신과 군사적으로 대등한 우주핵강국으로 인정하고있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상대를 너무도 모른다

기 자: 지금도 미국은 핵선제공격이라는 범죄적전략으로 공화국에 대한 위협을 포기하지 않고있지 않는가?

정 기 렬: 그것은 미국이 공화국을 너무도 모르고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은 미국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지만 미국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있다.

핵전쟁위협을 동반한 미국의 위협은 이미 1950년 11월 조선전쟁시기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할 때부터 시작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한 공화국의 도시와 마을을 모조리 파괴하였고 관개수를 제공하고 전기를 생성시키는 큰 저수지도, 그것도 쌀수확계절에 접어들어 폭격을 가하여 그야말로 《모든 생명의 청소》를 진행했다. 맥아더는 조선과 중국의 국경지역,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30개의 원자탄을 투하하고 방사능띠를 형성해 10일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자랑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1950년 전쟁때부터 60여년 내내 미국의 일방적핵위협속에 산것은 북이다. 바로 그 일방적침략구도, 곧 절대불변해보였던 비대칭대결구도가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의 국방위원회 1월 16일 중대제안발표뒤 작년봄 핵전쟁직전 전면전상황때처럼 미국이 또다시 꼬리를 내리였던것이다. 일본에 정박중인 핵항공모함(《죠지 워싱톤》호)정비를 핑계로 본국으로 회항시키고 미국의 여타 핵전략무력들도 2월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동방의 조그만 분단국가, 국제적으로 철저한 고립무원상태에 처한 북(조선)에게 소위 세계《유일초강국》이 지난 기간 왜 그처럼 끝없는 수모와 패배를 경험해야 했는지 리해자체가 어려웠던것은 당연한것이다.

부지피부지기(不知彼不知己)(상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百戰百敗)라는 가르침대로다.

거짓말밖에 할수 없는 가긍한 미국

기 자: 하다면 미국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 기 렬: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할수 있는것, 할수 없는것까지 다 해보았다.

이제 더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오직 거짓말뿐이다. 세계에 대고 흑백을 전도하여 조선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는것뿐이다.

거짓선전술은 일종의 사기술이다. 사람의 눈과 판단을 속여 더 많은 리윤을 창출하기 위한 장사술이다. 물론 거짓의 목적은 상대를 속이는것이다. 무슨 방법으로든 거짓하는 주체에게 있어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2000년대 후반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널리 받았던 주요저서들중 저명한 언론인이며 녀성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의 《충격교리: 재난자본주의의 도래》란 책이 있다. 《신자유주의》교리가 세상을 어떻게 끝없는 《충격과 재난》에 몰아넣었는지를 고발한 책이다.

부쉬는 바보스러움으로 세상을 충격과 재난에로 몰아넣었다면 그를 이어 오바마는 부쉬와 정반대로 《잘생기고 말 잘하는 하바드법대출신의 똑똑함》으로 세상을 충격과 재난에 몰아넣은 인물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부쉬의 바보스러움에서 비롯된 단순무식, 오만방자, 안하무인은 거꾸로 세상을 각성시키는 역작용을 낳았다. 그로 인해 거의 온 세상이 마치 《반부쉬현상이 세계화》했을 정도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 세상이 반미반제자주의식으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결과적으로 한것이다. 진정한 악의축으로 불리워야 마땅할 미국, 영국의 숨겨진 제국주의

본질을 세상이 널리 깨닫게 하는데 부쉬와 《부쉬푸들》로 불린 블레어 전 영국총리가 역으로 혁혁한 공로를 세운것과 같다.

오바마가 집권한 이후 세상에 준 배신감과 혼돈, 실망, 좌절, 절망감은 《충격, 재난 그자체》였으며 하여 그것은 부쉬때 받은 충격, 재난과 차원이 전혀 다른것이였다. 오바마의 등장은 부쉬덕에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여가던 반미반제자주독립운동의 공고화, 세계화를 일시에 멈추게 함과 동시에 한편 많은 이들을 극도의 혼란과 착각, 배신감, 좌절, 절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수 있다.

오바마는 소위 《진보(좌파)운동배경》을 내세워 미국은 물론 세상절대다수 《짓밟힌》 민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했었다. 그의 뛰여난 거짓과 《말 잘하는 똑똑함》은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서 《인류미래의 진정한 변화를 진심으로 기대케》 만들었던것이다. 세상다수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최면에 걸려있던동안 그를 내세운 지배엘리트들은 제국의 쇠락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의 실체는 거짓으로 일관된 충격과 재난의 련속과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승냥이는 결코 양으로 될수 없다.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롱락물로 될수밖에 없으며 피로써 지켜온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되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선군정치로 군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필연적선택일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든 막강한 군사력만이 조선반도의 안정을 담보할수 있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공화국인민들이 앞으로도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그속에서 자위의 억제력을 틀어쥔 공화국이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의 최후승자가 될 날은 머지않았다고 본다.

기 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